

## 추모사

이른 봄날부터 초저울을 맞는 오늘까지 이곳 팽목항은 한없는 기다림과 피 끓는 절규로 가득합니다. 풍요를 꿈꾸었던 저 바다는 눈물과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팽목항은 슬픔만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진도 주민들, 그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노란 리본을 달았던 수많은 국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가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불교계도 작으나마 재난구호봉사단을 조직하여 힘을 보탬 수 있었던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월호 희생자 영가를 위한 수록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록재는 수증과 육상의 고힌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자리이니 부디 세월호 희생 영가님들께서는 오늘의 이 공양을 받으옵소서.

영가들이시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안하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남겨주신 여러분을 생각하면 애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죽음마저 불평등한 차별 세상에서 참사의 진상조차 제대로 밝혀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영가시여. 돌이켜보면 참 생명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인연 따라 그 모양을 달리 하는 것이니, 비록 죽음과 이별이 아프기는 하나 참 생명은 불생불멸(不生不滅)하는 이 이치를 바로 아시고 다시는 생사를 받지 않는 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속히 왕생하소서. 아미타불 극락세계는 연화장 바다 위 연꽃 속에서 환생한다 하였으니 생과 사가 따로 없는 이 이치를 아신다면 이 슬픔의 바다는 아미타불 연화장 바다로 변하고 영가님들은 그 위에 뜬 아름다운 연꽃이 되실 것입니다.

유가족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같이 아파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마지막 실종자 한 분을 찾는 그날까지, 이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고 유가족 여러분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와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목숨을 걸고 수색과 구조 활동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 불편함을 감내해주신 진도 주민 여러분과 전국 각지에서 구호 활동을 위해 달려와 주셨던 모든 자원봉사자 여러분, 지난 210여 일 동안 구호 활동을 이어오신 호남 5개 본사와 진도불교사암연합회의 스님과 신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수륙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월호 희생영가들을 천도하고 남겨진 가족과 생존자들을 위로하며, 아직 남아 있는 진상규명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생명가치가 가장 우선하는 상생의 밝은 세상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향 사투어 희생 영가님들 영전에 바치오니 이제 부디 극락왕생 하소서.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불기 2558년 11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